

[보도자료] 쿠팡, 푸드 ‘쿨 썸머 페스티벌’ 오픈

2019. 7. 22.



- 6만여 종 생수 등 필수품부터 건강식품까지 한 자리에
- 2주간 15종의 최대 55% 할인 특가 상품 선봬

2019. 7. 22. 서울— 쿠팡은 다양한 푸드 브랜드가 참여하는 ‘쿨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푸드페어에서는 총 6만여 종 식품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여름을 부탁해 ▲차갑게 즐기자 ▲바캉스와 함께 ▲여름철 건강관리 ▲맛있는 식사 즐거운 요리 등 5개 카테고리 26개 테마로 세분화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생수, 탄산수부터 커피믹스 등 생필품부터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홍삼, 건강즙까지 한 자리에 모았다. 바캉스 시즌에 맞춰 여행지에 서 필요한 과자, 간식, 견과, 라면, 조미료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름 ▲종근당 ▲팔도 ▲블랙모어스 등 국내외 40개의 유명 브랜드를 별도로 모아 ‘브랜드관’도 운영한다. 여름 특집 커피와 건강식품쿠폰 특별할인관도 마련해 최대 6천원까지 할인해준다.

푸드페어 2주 동안 매주 7-8개씩 총 15종의 특가 상품을 선정해 최대 55% 할인가에 제안한다. 대표상품으로 ‘아워티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블랙 500ml 24개입’, ‘로엘 예뻐지는 선물세트’ ‘자미에스 프로바이오틱스 100’ 등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

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나들이 등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식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상품들을 한 자리에 선보이게 됐다”며 “쿠팡의 로켓배송은 자정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받아볼 수 있어 나들이 준비하는 고객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떠나요 바캉스 기획전, 장마 필수템 테마관, 쿠팡ONLY 테마관 등 계절, 시기별로 만 여종 이상의 관련 상품들을 모아 박람회급 라인업의 기획전, 테마관, 전문관을 오픈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